

# 정책발행 다이로움, 가맹점 개편

### 익산시, 일반 가맹점과 이원화 운영... 주유소·대형병원서 사용 가능

익산시가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개편에 나섰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맹해지됐던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를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이로움 가맹점을 '일반 가맹점'과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발행 가맹점'이란 농민공익수당 근로청년수당 등 지자체 정책실현

을 위해 발행하는 '정책발행(지급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병원, 식자재·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이 포함된다.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는 223개소로, 착한페이 앱 또는 익산시 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만한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이 없던 농촌 지역 주민들과 인근 병원, 주유소 등 사용 제한을 겪

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정책적 육성사업을 다이로움과 연계·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권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 7만원까지 10% 인센티브 추가지급 지원이 있는 중진형(구매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서해환경과 직장인 체력측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맞춤형 운동처방·운동특강’

### 군산체력인증센터-서해환경, 직장인 건강증진을 위한 MOU협약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서해환경과 직장인 체력측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해환경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서해환경 임직원들에게 개별 맞춤 운동처방과 운동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직장인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체력측정 및 운동프로그램 연계 데이터 제공, △주기적인 체력측정과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등이 다.

(주)서해환경 관계자는 "이번 군산체력인증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임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운동시간

이 부족하여 거북목, 손목터널증후군 등 많은 생활질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군산체력인증센터와 ㈜서해환경이 업무협약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장인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서해환경을 포함해 13개 기관과 MOU협약을 맺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4~6세,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까지 운영하며, 주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화·목·야(20시까지)와 두 번째·네 번째 토요일에 운영한다. 희망하는 시민은 군산체력인증센터(☎063-454-8761~3)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천안서 깜짝 홍보

### 시, 도시재창조 한마당서 책보선창 협동조합원들과 '할매맥아박강정' 홍보 캠페인 나서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알려진 군산시가 이번에는 3만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행사에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의 판매 홍보에 직접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천안에서 열리는 '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군산시 도시재생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전국 도시재생 단체 및 지자체 등 약 3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사업 홍보를 넘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북 최초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설립된 책보선창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할매맥아박강정' 시식과 판매 홍보를 결합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화자 이사는 과거 군산 책보선창의 이야기와 맥아박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설명했고,



시는 유명 유투버가 흥미롭게 제작한 할매맥아박강정 등 군산 도시재생사업 홍보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책보선창 협동조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체 책보선창 변형회가 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2021년 지어진 수제맥주 양조장 비어포트가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 수익 창출 방안으로 양조장에서 발생하는 맥아부산물(맥아박)을 활용해 웰빙 간식 개발하면서 설립이 진행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18일 시범운영

익산시는 18일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현동 롯데시네마 건물 3층에 '온몸으로 놀이하는 모험 놀이터'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센터는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실 △미술실 등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일요일은 휴관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놀이체험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시범운영 기간에도 놀이체험관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센터는 서부권 지역 영유아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기가 행복한 공간 조성으로 서부권 영유아 가족들의 육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력



을 총괄집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병품이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필수 시설인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격차 해소

군산시는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수준별 디지털 교육 수강이 가능한 '디지털배움터' 13개소, 디지털 체험존 및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디지털배움터는 군산콘텐츠팩토리, 시 자원봉사센터,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미장유먼시가 작은도서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충)디지털체험존, 농민상담소 6개소(옥산, 서수, 나포, 옥서, 미성) 등 총 13개소이며, 지난 8월 말까지 3,493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사용법, 지역화폐 등 앱사용법, 인터넷뱅킹,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주문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또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 마련된 디지털 체험존을 통해 VR, 드론, AI스피커 등 디지털 기가지체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도 운영해 디지털 기가지체를 희망하는 교육대상자까지 온반해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체험존을 구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추석 명절 악취 유발 사업장 특별 점검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장과 농가 등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긴 연휴를 틈타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과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주요 악취 유발 사업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악취배출구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방지시설 가동상태 등 각 시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축산 농가의 경우 시설 점검과 함께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악취저감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토록 지도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추석 명절 대비 708억원 신속 집행 나서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708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 대비 집행되는 지금은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분야 357억 원과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196억 원, 경상적 경비 155억 원 상당이다. 추석 전까지 자금 집행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금을 지급해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 방지에 나선다. 특히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공사대금 뿐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러 시는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720억 원을 대기 자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 추납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해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